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11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안양

9월 15일 (일) 16:00



Next Home Match
광주 vs 수원 9월 28일 (토) 14:00



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jfc0

Photo Gallery

2013/09/01 (일) 16:00 부천전



Data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경찰 축구단	23	51	16	3	4
2	상주상무피닉스	23	44	12	8	3
3	광주FC	23	32	9	5	9
4	고양FC	23	31	8	7	8
5	FC안양	23	30	8	6	9
6	수원FC	23	29	7	8	8
7	부천FC	23	22	5	7	11
8	충주함벨	23	13	3	4	16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11	안양	3 - 3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19	광주	3 - 1	경찰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26	수원	3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01	광주	1 - 0	부천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08	고양	5 - 1	광주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루시오	9	23	0.39
2	김은선	4	18	0.22
3	김호남	4	19	0.21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루시오	6	23	0.26
2	김호남	5	19	0.26
3	박현	2	16	0.13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08(수)	19:00	광주	충주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

*FA CUP 경기

중흥S-클래스	KJB 광주은행
GS&POINT	우미건설
광주월드컵점	밝은안과21
SFB 사랑방 신문	TS 교통안전공단
모아레포츠타운(주)	광주수완병원
해모수 휘트니스 클럽	광남일보
수원/충주/영남/울드	민속촌
수원/충주/영남/울드	무진주

Review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했던 경기



광주가 고양에게 예상치 못한 대패를 당했다. 광주FC는 8일 저녁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3라운드 고양 Hi FC와의 원정경기서 상대 공격수 알렉스에게 1골 3도움을 허용하며 1-5로 패했다.

전반 초반까지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지만 실책성 플레이로 인한 첫 번째 실점이 문제였다. 전반 21분 자기진영 깊숙한 곳에서의 패싱 전개가 중간에 끊겼고 이 볼이 상대 윤동현-알렉스에게 이어지며 선취골을 허용한 것. 설상가상 광주는 전열을 채 정비하기도 전에 추가 실점했다. 불과 5분 후 알렉스가 광주 PK박스 오른쪽에서 패스를 띄워주자 문전에 위치한 정민무가 이를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전반전 스코어는 0-2로 벌어졌다.

하프타임에 남기일 감독대행은 전명근과 루시오를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오히려 광주 수비 뒤 공간을 역이용한 고양에게 지속적으로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후반 4분 알렉스의 코너킥을 이세환이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세 골 차로 벌어졌고, 후반 26분에도 알미르가 단독 드리블로 광주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고 득점했다. 후반 32분에는 광주 진영에서 얻은 프리킥을 알렉스가 문전으로 연결했고 이세환이 또 한 번 헤딩 득점에 성공하며 다섯 골 차로 벌어졌다.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임선영이 화려한 개인드리를 실력을 뽐내며 한 골을 만회했지만 네 골 차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고 결국 고양에 1-5로 무릎을 꿇었다.

Preview

광주, 모든 것을 걸고 맞서야 한다!



지난 주말 고양 원정에서 올 시즌 최대 실점 패배의 아픔을 겪은 광주가 하루 빨리 전열을 재정비하고 안방에서 안양을 잡아낼 수 있을까? 남기일 감독대행이 지휘하는 광주FC가 오는 9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역시 최근 흔들리는 FC안양을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일단 기술-전술에 앞서 일단 지난 주말 참패의 충격에서 선수단을 한시 바빠 건져내는 게 남기일 감독대행의 지상과제다. 덧붙여 흔들리는 4백라인의 보완에도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수비조직력이 단시간에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진영에서의 안정적인 볼 처리 같은 부분은 선수 개개인의 집중력 향상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인다.

최근 중원 장악 싸움에서 상대 팀들에게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미드필드진 역시 패스게임도 좋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경합으로 볼을 쟁취하고 지켜내려는 의지와 병행해야 한다. 반면 지난 고양 원정에서 루시오-김준엽-김호남 대신 루이지뉴-박현-안동혁의 3톱이라는 다소 실험적인 선수 구성을 내세웠던 공격진은 이번 안양전에도 선발 출장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FC안양 – 고비를 넘기는 힘이 부족하다



지난 주말 리그 선두 경찰과의 경기가 안양의 허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각각 중원과 수비라인의 핵심인 최진수와 돈지덕이 경고누적으로 빠졌지만 탄탄한 수비력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내용 자체는 경찰에 전혀 손색없는 경기를 펼쳤던 것. 하지만 전-후반 맞은 무수한 득점 찬스를 놓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반면 집중력 높은 경찰의 공격에 수비는 크게 흔들리며 결국 염기훈에게 헤딩으로 선취골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후반전에는 맹추격의 분위기에서 어거구니없는 자책골까지 기록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비록 경기 막판 겨우 한 골을 만회했으나 그 이상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팀 역량의 한계가 뚜렷했다.

양 측면과 2선 자원들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원톱인 남궁도와 이완희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수비라인 역시 후반 중반부터 급격한 집중력 저하로 볼 처리와 대인방어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광주로선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안양의 가장 확실한 찬스메이커

다소 열악한 신체조건을 탁월한 볼 컨트롤과 창의적 움직임으로 극복하는 유형의 미드필더. 패스와 세트피스 시 올려주는 킥이 정교하고 무엇보다 틈만 나면 때리는 중거리 슈팅 또한 일품이다.

Focus

이광진 – '임대 신화' 를 꿈꾸는 젊은 재능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광주는 FC서울의 이광진을 임대 영입했다는 '깜짝 뉴스' 를 터뜨렸다. 동북중-고교를 거치며 기술적 재능과 승부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광진은 그러나 강호 FC서울의 두터운 선수층에 막혀 프로 데뷔 후 이렇다 할 실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광주로의 임대는 새로운 활로가 됐고 그간 실전에 굶주렸던 이광진은 최근 출장하는 매 경기 누구보다 열심히 뛰며 상대 수비라인을 교란시키고 있다. 광주 역시 젊은 재능을 영입해 측면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했고 기존의 김호남, 김준엽, 임선영 등 토종 자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줌으로서 전체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8월 경찰과의 홈경기서 후반전 멋진 헤딩슛으로 자신의 프로 데뷔 골을 성공시킨 이광진은 9월 첫날의 부천전에서도 후반 막판 김준엽의 천금 같은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다. 결국 자신의 프로생애 첫 골과 첫 도움을 광주에서 기록하게 된 것. 특히, 부천전 어시스트의 경우 거의 골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몸을 던지는 투혼을 발휘 날카로운 측면 크로스로 만들어내면서 광주 홈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